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의 생태학적 접근 시 준비요건

오광진*(한국재활복지대학)

《 초 록 》

본 연구는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생태학적 접근 시 준비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평택시 H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 뇌성마비학생 3명으로 2006년 2학기 15주 동안 통합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관련문서수집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타당도와 진실성은 연구참여자간 검토, 전문가간 협의, 삼각검증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Patton, 1990)한 결과, 생태학적 개별 요소에서는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 '연구참여자(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맞춤 운동 프로그램의 제공',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체육상담의 정례화'라는 5개의 주요 범주를 도출하였다. 특히,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 연구참여자의 마음가짐,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은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에서는 장애 이해 도모와 전공 능력 배양, 연구참여자의 마음가짐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와 소극적인 마음 상태,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은 장애학생 도우미 제공과 편리한 보건센터 이용 및 다양한 용기구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생태학적 요소들 간의 관계는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과 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사이에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맞춤 운동프로그램의 제공, 체육상담의 정례화가 연계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을 때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통합체육수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성공적인 통합체육수업 실행을 보장해 줄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어: 통합교육, 통합체육, 체육수업, 운동프로그램, 지원서비스, 체육상담, 생태학, 뇌성마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인 특수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2002년 3월 1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H 대학이 설립되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 2002).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통합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는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또한 통합체육수업의 실시는 이후 장애인들이 일반 사회생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대학에서 배운 체육활동을 졸업 후에도 평생 즐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장애학생들이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하고 싶어도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통합체육수업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실시해도 물리적인 통합교육만 실시했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도 일반학교에 입학하였다면 어엿한 학생으로서 교육과 학습에서 일반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학생이 통합체육수업을 받고 있는 체육 현장 및 환경의 실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학적 접근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과제성취를 위한 장벽과 능력 관련 환경(물리적, 심리사회적, 임시적)을 조사, 둘째, 운동빈도, 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비율, 운동의 질, 운동의 연속성을 포함한 난이도 해결을 위한 과제분석, 셋째, 학습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에서 개인의 최적화 및 성공의 평가이다(Nihira, Weisner, & Bernheimer, 1994; Overton, 2003; Sax & Thoma, 2002).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학생들의 학습 혹은 행위문제에 어떤 요소가 기여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또한, 생태학적 접근은 있는 그대로의 주변 환경을 사용하는데, 최적의 자연환경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반시설이라고 한다. 놀이기구나 장비로 채워진 옥내 및 옥외시설 등이 바로 그 예이다. 특히, 특수체육에서 자연환경은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과 사회 및 물리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 산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해주고, 개인, 소그룹, 조직에게 변화를 꾀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Hersey, Blanchard, & Johnson, 2001). 이러한 생태학적 모형은 개

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특수체육에서는 생태학적 접근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2; Davis & Burton, 1991; Hastie, 1995; Nihira, Weisner, & Bernheimer, 1994; Siedentop, 2002).

이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활동에는 생태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체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생태학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통합체육과 관련된 생태학적 접근에서 신체활동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체육수업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타 대학 체육수업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수체육 및 일반체육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체육 현장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체육수업의 준비는 너무 소홀하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도 각 대학의 제반시설, 지도자, 운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그 실태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지도 못하다. 즉, 학습도우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 지원서비스(Support-Service) 등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학생들의 체육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체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일선 학교 통합체육수업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지체장애 1급, 2급)이 참여하는 통합체육수업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탐색하고 그 주요 요소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H 대학의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최소한의 생태학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통합체육수업에 배치되었을 때 이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태학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H 대학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통합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태학적 접근 시 준비요건과 관련된 지식 체계 및 개념들을 설정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에서 통합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H 대학 학생들 중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15주 동안 통합체육수업을 실시하면서 이들에게 현재 어떤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해야 도움이 될 지를 귀납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통합체육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06년 2학기, 15주 동안의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H 대학 1학년 학생들 중 중증 뇌성마비학생 3명을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 참고로 H 대학은 한국 최초로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으로 2006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총 재적생(1학년과 2학년 포함)은 512명이었으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비율은 약 36% 대 64%이었다.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108명, 청각장애 52명, 시각장애 10명, 기타장애 16명, 총 186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일반학생은 총 326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들 중 1학년 학생의 장애학생은 84명(지체장애 49명, 청각장애 22명, 시각장애 3명, 기타장애 10명)이었고, 일반학생은 181명으로, 총 265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가 실시된 2006년 2학기 교양 통합체육수업 시간에 참가하는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들은 6개 학과(1개 학과는 2시간의 교양 통합체육수업에 참여함) 148명[장애학생 51명(뇌성마비학생 12명 포함), 일반학생 97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중증 뇌성마비학생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가명)	성	연령(만)	가족수	학년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졸업학교
김준민	남	26세	3명	1	1급	신생아	열병	특수학교
성지영	여	24세	4명	1	1급	출생시	산소부족	특수학교
최태민	남	25세	5명	1	2급	5세 때 발견	뇌동정맥기형	특수학교

*본 연구에서 장애등급은 장애인 수첩에 기재된 장애등급을 사용함

이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김준민(가명)은 만 26세로 남자이며 부산에서 태어났고,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으며, 장애등급은 1등급을 받았다. 장애 원인은 신생아 때 열병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11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특수학교에 입학한 후 중간에 자주 휴학을 하고 늦게 특수학교를 졸업한 다음 H 대학에 입학하였다. 가정형편은 보통이며, 집안은 유복하고 여동생과도 사이가 좋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특성은 전형적인 뇌성마비인으로 근육에 강직이 있었으며, 몸은 뻣뻣하고, 말을 할 때에는 좀 어눌하고, 더디며, 답답한 감이 있으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항상 전동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 사회성은 대체로 양호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학과활동에 참가하고, 장애학생이라는 점만 빼고는 일반학생들보다 오히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일반 친구들도 예상 밖에 많았으며, 다른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들과도 너무 잘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 측면에서는 학과공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성지영(가명)은 만 24세로 여자이며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있으며, 장애등급은 2등급을 받았다. 장애 원인은 신생아 때 산소부족으로 뇌성마비인이 되었고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다니다가 늦게 H 대학에 입학하였다. 가정형편은 가난한 편이나 장애인도 배워야 한다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H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특성은 얼굴표정이 밝고 명랑하며, 특히 오른손이 경직되어 있어 과제물을 작성할 때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생활하고 있었다. 몸은 뻣뻣하고,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회성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도 아니었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려고 하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 간혹 친구들과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일반학생 및 장애학생들과 보통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했다. 학업 측면에서도 학과공부를 무난히 따라가고 있었지만 과제물을 작성하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볼 때는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태민(가명)은 만 25세로 남자이며,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고,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두 명이 있으며, 장애등급은 2등급을 받았다. 장애 원인은 5세 때 뇌동정맥기형으로 뇌병변 판정을 받았으며, 특수학교를 10살에 입학한 후 늦게 졸업하고 집에서 2년을 쉬다가 직업학교를 1년 다닌 후 H 대학에 입학하였다. 가정형편은 보통으로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큰 여동생은 대학 4학년, 그리고 작은 여동생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특성은 특히 하지마비로 팔뚝은 가늘고 손은 조금 강직되어 있고, 얼굴 표정은 밝고 명랑하며 손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으며,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사회성 역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며, 일반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긴 하지만 그 횟수가 많은 편이 아니며, 웬만한 일처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학생은 아니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대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며, 친구들과도 무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립심이 강한 학생으로 보였다. 학업 측면에서도 학과공부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H 대학의 1학기 성적이 학과에서 중간 정도였다.

2. 통합체육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증 뇌성마비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통합체육 프로그램은 6개 학과에서 매주 1회, 1회 2시간(출결 확인 및 인원 점검: 10분, 준비운동: 20분, 본운동: 60분, 정리운동: 10분, 총 100분으로 구성)으로 실시하였다.

표 2. 주별 통합체육 프로그램 내용

주차	통합체육 프로그램 내용	난이도	비 고
1	오리엔테이션 및 파라림픽 (Paralympics) 시합 장면 VIR 감상		본 연구의 중요성 설명,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가 종목 등 소개
2	변형 좌식배구(풍선 사용)	하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앉아서 풍선 및 비치볼 배구경기를 하게 하였으며, 서브권이 있어 모든 학생들이 순환하면서 여러 포지션을 경험하도록 함
3	변형 좌식배구(비치볼 사용)	중	상동
4	변형 배드민턴(풍선 사용)	하	변형 배드민턴 수업 상황에 맞게 경기장, 인원수, 규칙과 방법, 도구 등을 변형하여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한 조가 되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도록 풍선을 사용하여 운동함
5	변형 배드민턴(가볍고 작은 비치볼 사용)	중	상동
6	변형 야구(중간 크기의 비치볼 사용)	하	중증 뇌성마비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격 시에는 맨손 혹은 플라스틱 방망이를 사용하여 비치볼 혹은 가벼운 탱탱볼을 치고 대주자를 이용하여 1루에 진출하도록 함. 수비 시에는 날아오는 공을 자신의 몸 어느 부위에 대기만 해도 타자가 아웃되게 함
7	변형 야구(작은 탱탱볼 사용)	중	상동
8	중간고사		
9	보치아(정식공 사용)	중	보치아 경기 규칙과 방법, 도구 등을 그대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에게 적용함. 3인 1조로 보통 장애학생 1명과 일반학생 2명으로 한 팀으로 구성함
10	보치아(정식공 사용)	중	상동
11	변형 농구(큰 탱탱볼 사용)	중	변형 농구 경기 상황에 맞게 규칙과 방법, 도구 등을 변형하여 실시하였으며,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골대가 되어 자기편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을 터치하면 1점, 공을 잡으면 2점을 부여함
12	변형 농구(중간 크기의 탱탱볼 사용)	상	상동
13	변형 축구(큰 탱탱볼 사용)	상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은 배드민턴을 사용하여 공을 밀거나 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골대는 4곳[한 곳에 5개의 콘(Corn)을 세움]에 설치하여 한 팀이 두 곳의 골대를 책임지게 하였으며,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주로 골대 근처에서 수비를 하였으나, 이들이 공격 시에 배드민턴 라켓으로 콘을 맞출 경우에는 일반학생의 2배 점수를 부여함
14	변형 축구(중간 크기의 탱탱볼 사용)	상	상동
15	기말고사 및 통합체육수업 종료		한 학기(15주 수업) 수업 종료

3. 자료 수집

1) 참여 관찰

질적 연구에서 참여 관찰이나 면담은 수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만(이용숙, 1989; 조용환, 2000), 연구자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과 함께 통합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 관찰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완전참여자로서 통합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와의 공식적·비공식적 개별 및 집단면담의 내용, 그리고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일련의 상호작용 등 수업현장 전반에 대한 모든 관찰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체육수업을 실시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영향이나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상황들을 연구자의 관찰과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현장기록을 하였다. 즉, 수업일지, 즉석 메모 등을 사용하였다. 수업일지는 연구자가 만든 노트 형식의 종이를 사용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일정, 연구추진 상황, 학생들의 참여 정도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하였다. 다시 말해, 면담학생의 명단, 면담시간, 장소, 면담 시 필요한 자료, 개괄적인 면담내용, 개요도, 흥미, 참여정도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실행여부를 확인하였다. 즉석 메모는 수업관찰 및 심층 면담 시 매 순간의 맥락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용하였다.

2) 심층 면담

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 의견 혹은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말한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 공식적인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과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즉 이름, 나이, 가족관계, 취미 사항, 좋아하는 운동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하였고,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생태학적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공식적 면담은 공식적인 면담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졌거나 수업관찰 및 문헌조사 등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매주 통합체육수업을 실시한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오늘 체육수업에 관한 자기 자신과 과제,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게 기술하게 하였으며, 수업 후에는 연구참여자들을 본 연구자의 연구실로 불러 개별 심층 면담을 2주에 1회 실시하면서 휴대용 소형 녹음기로 기록하였으며, 소요시간은 대체로 50~60분이 걸렸다. 이때 연구자가 녹음한 내용과 현장 노트 내용을 컴퓨터에 전사(轉寫)한 후 재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나중에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 과정을 거쳤다.

3) 관련 문서 수집

연구자는 연구내용을 기술, 분석, 그리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연구자가 환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다각도로 수집하였다. 관련 문서는 연구참여자의 체육수업에 관한 태도, 가치관, 반성, 도움 등의 내용을 과제물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또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작성한 개방형 설문지, 통합체육수업 계획서 및 기록지, 참고 유인물 등을 수집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이러한 관련 자료들을 하나의 텍스트(text)로 보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맥락(context)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연구결과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사례 기록에 대한 내용, 면담자료, 현장기록, 관련 문서 자료 등은 컴퓨터의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전사(轉寫)한 후, 텍스트의 분절화를 위해 Patton(1990)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자료를 반복적으로 숙독하면서 의미 있는 단위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단어와 문장들을 재정리하여 어느 정도 범주화를 시키면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목록으로 정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숙독하고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을 하위주제로 분류해 가며, 부호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 하위 주제별로 분류된 각각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독하면서 각 하위 주제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 주제어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하위 주제어들 간의 관계성을 찾아가면서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자료의 타당성 및 진실성

1) 연구참여자간 검토

연구참여자간 검토(member check)란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을 가지고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Guba, 1981).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원자료를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가 정확성과 해석상의 차이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세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첫째, 면담이 성사된 직후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한 내용이 연구참여자가 의도한 말과 같은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원자료를 분류한 후 연구참여자에게 주제별로 분류된 내용을 보여주어 기록에 대한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참여관찰에서 기록한 내용 역시 연구참여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 전문가간 협의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능통한 다른 전문가들과의 회의(peer debriefing)가 자료의 분석과 해석 시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전문가 2명과 특수체육 박사 1명에게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 과정의 타당도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동료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과정에서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가 적합했는지, 수집된 자료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타당한 지,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원자료들이 주제별로 범주화 되었는지를 검토·의뢰하였다.

3)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된 자료와 범주화된 자료를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자료의 삼각검증법과 방법론의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였다(김혜숙, 2006; Denzin & Lincoln, 2000), 본 연구에서의 자료의 삼각검증법은 관찰자료, 면담자료, 관련 문서 자료 등의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방법론의 삼각검증법은 수업관찰방법, 심층면담방법, 질문지방법, 과제물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이후 이러한 연구자료들은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상호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집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수집된 자료들의 일관성, 타당도, 그리고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의 생태학적 접근 시 준비요건에 관한 참여관찰, 심층면담, 관련문서수집 등을 통해 H 대학의 통합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생태학적 접근 시 필요한 준비요건을 알아보았다. 개별 요소에서는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 '연구참여자(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맞춤 운동 프로그램의 제공',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체육상담의 정례화'라는 5개의 주요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담당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과 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사이에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맞춤 운동프로그램 제공, 체육상담의 정례화가 연계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1.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

1) 장애 이해 도모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의 체육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대

부분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고 일반인 중심의 체육활동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상태에 따라 체육활동의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체육지도자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장애 특성을 무시하고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의 특수체육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앞으로 한국의 특수체육현장에서는 질 높은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자신들처럼 체육활동에 참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체육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김유환, 2001; 노형규, 2004; 오광진, 2005)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장애특성을 잘 알고 체육수업을 제공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들보다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수님이 내 신체 상태를 알고 나에게 맞는 역할을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 체육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매 시간 나에게 맞는 운동을 제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10주차 보치아 수업 후 김준민과 면담 내용).

교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말할 때 장애인 먼저 생각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도 여러 친구들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하고 이 운동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말이에요. 특수학교 다닐 때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5주차 변형배드민턴수업 후 성지영과 면담 내용).

태민이가 나에게 다가와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물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뇌성마비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종목(예: 보치아, 풍선배구, 공맞추기 등)을 설명해 주고, 태민이의 신체적 움직임을 체크하였다. 내가 태민이의 신체상태를 체크했을 때 태민이의 신체상태는 안 좋았다. 나는 태민에게 자신의 신체상태가 왜 안 좋은지를 운동역학적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태민이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나에게 의아해 하면서도 내 말을 신뢰한다는 표정을 지었다(11주차 변형농구수업 후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위의 관찰 및 면담 내용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담당 체육교수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신체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을 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통합체육수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체육지도자들이 장애학생을 만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에 맞는 지도 및 접근 방법을 습득해서 장애인에 다가가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담당 체육교수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오광진, 2003; 오광진, 최승권, 김기영, 2002; 이미영, 2000; Kowalski, 1995; Patrick, 1987; Rizzo & Bishop, 1997).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통합체육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 등을 정확

히 알고 체육수업을 실시할 때 장애인 각자에게 맞는 질 높은 체육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미래에 체육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도 교육과정에서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2) 전공 능력 배양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의 전공 능력을 최대한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공 지식은 물론 실기 능력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 때 학생들이 그 체육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체육현장을 보면 과거에 비해 장애인체육 전공 지도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체육 관련 지식 및 실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노형규, 2002; 조재훈, 2003).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미래에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진지한 고민이 특수체육학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현재 일선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질적 관리를 위해 재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특수체육학의 발전과 성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변형 배드민턴 수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배드민턴을 잘 친다는 학생을 불러 단식 경기를 했다. 결과는 15대 1로 내가 이겼다. 태민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나에게 다가와 배드민턴이 너무 멋있다고 하였다. 설마 이렇게 큰 점수차로 이길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자기과에서 승명(가명)이가 제일 운동을 잘 하는데 교수님에게 쪽도 못쓰고 지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내가 체육수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체육교수로서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 것처럼 느껴졌다(4주차 배드민턴수업 후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다음 주에 야구수업을 한다기에 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야구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야구세트를 가지고 와서 경기규칙을 변형하고, 받침대 위에 텡텡볼을 올려놓고 플라스틱 방망이로 볼을 치게 한 후 내 대신 다른 친구를 1루로 달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11주차 변형 야구수업 후 성지영과 면담 내용).

농구를 할 때 나는 지영이에게 골대 역할을 하게 했다. 골대는 2m 원 안에 지영이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앉아 자기편 선수의 공을 받게 했다. 이때 공을 받으면 2점, 손으로 공을 터치하기만 해도 1점을 부여해 농구수업에 참여하게 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에게는 체육관을 뛰지 말고 빠르게 걸어다니면서 드리블을 하게 했고, 여학생과 장애학생들에게는 더블 드리블을 없애주어 이들이 자유롭게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의외로 골이 많이 나서인지 지영이는 농구수업 후 나에게 다가와 농구수업이 매우 좋았다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12주 변형농구수업 후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교사는 간혹 팔색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체육지도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장애인체육지도자들 역시 이 말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담당 체육교수가 시범을 보였을 때 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체육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체육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체육이 왜 중요한지를 교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록 체육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긴 하지만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담당 체육교수가 보여주는 시범과 전공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체육수업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담당 체육교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전공 지식 및 실기 능력이 중요한지를 잘 시사해 주는 예로서 앞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공 능력을 길러야 함을 잘 암시해 주고 있다.

2. 연구참여자(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1) 적극적인 참여 의사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러던 것이 1988년 서울 파라림픽(Paralympics) 이후 장애인들에게도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면서 지금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및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혹은 특수체육지도자)가 배출되어 왔지만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체육단체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체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훌륭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이를 따라주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들의 체육수업이 성공적일 수 없다. 체육수업이란 체육교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고, 좋은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발휘해 가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들은 장애인들에게 재밌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이제 체육수업이 기다려져요 또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 우리에게 운동을 시킬까 하고 궁금도 하구요. 이제 제 마음도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수업방식을 믿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좋아하게 됐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6주차 변형야구수업 후 최태민과 면담 내용).

저는 체력이 약해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체육수업을 통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내 체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하니 말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 항상 아쉬워했으니까요(9주차 보치아 수업 후 김준민과 면담 내용).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운동마니아들을 보면 이들은 건강보다는 운동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이들 운동마니아들처럼 운동에 심취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바람직한 운동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좋아서 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운동이 건강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친다면 장애인들 역시 운동을 따분하고 지겹게 생각할 것이다. 즉, 장애인들이 운동을,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독서, 영화감상 등을 취미로 생각하듯이, 장애인들도 운동을 취미로 생각하게 하여 항상 자신의 주변에서 운동을 즐기는 습관을 생활화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비록 중증 뇌성마비 학생들이 체육활동이 재밌고 즐거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및 체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연구자는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에게는 체육활동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체육활동’ 혹은 ‘취미 생활로서의 체육활동’을 함께 병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장애인들이 운동을 취미 생활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그때는 현재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권장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이미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생활화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소극적인 마음 상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이동성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가진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물리적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적 장벽 외에도 사회적 장벽 역시 하나의 큰 이유일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등이 아직도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 혹은 사회적 장벽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역효과를 가져오는 요소들로 밝혀지고 있다(오광진, 2003).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장벽과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국가 및 사회에 자신의 권리 및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체육수업에 한정해서 고려해 볼 때에는 장애 당사자들의 정신적 자세 혹은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이를 받아주는 장애 당사자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그 체육수업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수업이고 강의를 수강하는 대상자들의 마음가짐이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그 수업은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체육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

맨 처음에는 체육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어요. 1교시에 수업에 참가하려면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같은 뇌성마비인들은 운동을 하는데도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일반학생들은 몸을 풀고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경기규칙, 도우미, 역할부여 등 모든 것이 일일이 손이 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이 서너 배 더 필요하잖아요(4주차 변형배드민턴수업 후 김준민과 면담 내용).

농구를 할 때 저는 골대 역할을 하게 되어 운동에 별 재미를 못 느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공만 받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체육시간에 참가할 수 없어 아쉬웠어요. 교수님은 저의 안전을 염려하여 저에게 골대 역할을 부여한 것 같은데,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휠체어를 움직이면서 운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11주차 변형농구수업 후 성지영과 면담 내용).

오늘 따라 체육관을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니 나한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휠체어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먼 거리 같았어요. 거리를 조금 좁혀 주었다라면 하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또 인원도 많아 제가 휠체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인원수를 조금 조정해 주면 나도 축구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13주차 변형축구수업 후 최태민과 면담 내용)

본 연구의 참여자인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을 대상으로 H 대학의 환경 및 시설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세 학생 모두 학교 환경 및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었을 때에는 체육수업과 관련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체육수업에서 장소, 경기규칙, 인원수, 안전 등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앞으로 체육지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오광진, 2005). 그러나 담당 체육교수는 매주 통합체육수업 중간에 간혹 안전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이 염려하고 있는 듯 했다. 안전사고의 문제는 담당 체육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경우에는 담당 체육교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담당 체육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통합체육수업을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안전문제이며,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입장에서 안전문제로 인하여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마음자세를 갖게 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3.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 제공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장애인 각자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김의수, 2003). 특히, 장애 당사자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그 장애인의 신체적 움직임, 경기 방법 및 규칙의 이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현실을 보면 대학교육에 장애학생을 선발만 해놓고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양체육 수업 실태에 관한 자료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장애인체육 환경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체육수업권의 보장은 요원한 일이다(오광진, 2005).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선호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해 이들이 요구하는 운동종목을 체육수업 및 체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 없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에 다닐 때 보치아 경기를 조금 해봤어요. 뇌성마비인들이 즐겨 하는 운동 중에 보치아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저한테는 보치아 운동이 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대학에서도 이렇게 보치아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뇌성마비인들에게 맞는 운동을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9주차 보치아 수업 후 최태민과 면담 내용).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풍선을 사용해 배드민턴 수업을 하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일반친구들처럼 서툴룩으로 칠 수는 없었지만 풍선을 사용해서라도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에게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제게 맞는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5주차 변형배드민턴수업 후 과제물 내용).

일반적으로 체육수업에서 담당 교수는 장애학생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기에 앞서, 사전에 장애학생의 세부 장애영역과 장애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장애영역과 장애정도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쉬운 운동일지라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운동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신체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즉 경기장, 경기방법, 경기규칙, 인원수 등을 변형하여 제공해 주었을 때 이들은 만족해 하였다.

연구자: 오늘 풍선 좌식배구 프로그램이 어땠니?

최태민: 정말 좋았어요.

연구자: 왜 좋았다고 생각하지?

최태민: 일단 제가 전혀 움직일 수 없어 배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풍선을 이용해 배구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신기한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너에게 풍선 좌식배구 프로그램이 적당했다고 생각하니?

최태민: 그럼요. 내 신체능력을 교수님이 정확히 알고 저에게 알맞은 과제를 부여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풍선을 두 번 칠 기회를 주었고, 또 풍선을 다섯 번 만에 상대방으로 넘기게 한 것 등은 저 같은 장애학생들에게도 배구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연구자: 그럼 교수님이 부여한 네 좌식배구의 수준에 불만이 없다는 얘기겠네?

최태민: 네. 그래요. 좌식배구에서 저의 편의를 봐준 교수님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운동을 조금 달리 생각하여 변형하면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2주차 변형좌식배구 수업 후 김준민과 면담 내용).

15주 동안의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수준은 학기 초 낮은 수준에서 접근하여 학기 말 높은 수준으로 나아갔다. 학기말의 통합체육프로그램인 변형농구와 변형축구에서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종목은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소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체육교수들이 장애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시키려고 할 때에는 운동 프로그램의 수준도 정확히 고려하여 이 운동에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장애학생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아닐 때에는 체육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이 배제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 변형농구수업에서 골대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지영이와 변형축구수업에서 콘(Corn)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수비만 하는 준민이에게 담당 체육교수는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이게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지영이는 농구수업을 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격렬한 농구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 부담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농구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전반 중간에 골대에서 공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한테 건의했다. 내가 보기에 농구경기를 변형했다고 하더라도 골대 역할보다는 뛰는 역할을 주는 것은 지영이에게 힘겨운 일처럼 보였다(11주차 변형농구수업 후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축구는 준민이에게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준민이에게 골대 앞에서 수비를 해보라고 권하였다. 간혹 휠체어를 이용해 공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손에 쥔 배드민턴 라켓으로 탱탱볼을 맞추기가 힘겨워 보였다. 축구는 준민이에게는 약간 어려워 보였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준민이가 배드민턴 라켓으로 탱탱볼을 터치만 해도 준민이가 공을 치고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추고 규칙도 변형하였다. 이후 준민이는 변형축구를 어느 정도 만족해하면서 수업에 참가하는 것 같았다(13주차 변형축구수업 후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4.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1) 장애학생 도우미 제공

H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 약 15명으로 구성된 도우미들이 수화와 속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원도 함께 겸하고 있었다. 이들 도우미들은 일반 교과목의 수업을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장애인들의 수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수업의 경우에는 도우미(혹은 보조자)가 없었다. 간혹 일반학생들에게 협조를 얻어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자발적인 도우미 역할이 아닌, 약간은 강제적인 도우미여서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는 못하는 듯 했다. 체육수업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수업이다.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오광진, 2005)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 H 대학에서는 체육수업시간까지 도우미를 배치해 줄만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통합체육수업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질 높은 체육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체육수업시간에도 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가 공을 친 후 제 대신 친구를 1루로 달리게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간에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야구를 할 수 있지 하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친구가 도와준다면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11주차 변형야구수업 후 김준민의 과제물 내용).

태민이는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았다. 배드민턴 라켓으로 공을 치려고 해도 이미 다른 학생들이 와서 그 공을 빼앗아 발로 차기 때문이었다. 또한 휠체어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려고 해도 휠체어의 움직임이 일반학생들의 움직임보다 늦고 태민이가 축구수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함께 지도 및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았다(13주차 변형축구수업 중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본 연구에서 H 대학의 통합체육수업은 말이 통합체육수업이지 실제로는 분리체육수업에 가까웠다. 장애학생이 약 10명에 일반학생이 13명으로서 한 명의 체육교수가 이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체육수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도우미의 지원을 통해 현재보다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들도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체로 이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체육수업시간에 제대로 된 도움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선 장애인체육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수업을 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H 대학의 경우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학교이긴 하지만, 아직도 장애학생들은 많은 부분 학습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 일반학생들은 그래도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었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들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H 대학의 장애학생지원관이 유관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학내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활용하거나, 타 대학의 자원봉사자들과 협력을 맺어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원종례, 2001)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도우미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편리한 보건센터 이용

대체로 특수교육이 발전한 선진국을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기관에는 지원센터와 보건센터가 함께 부속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 교육에 적절한 지원서비스와 건강관리가 중요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한두 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기관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시로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H 대학 역시 장애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H 대학의 보건센터의 기능은 그 시설이 미흡하고 특히 공간과 의료기구가 일선 중·고등학교의 양호실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많은 장애학생들이 보건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을 받다가도 중간에 수시로 보건센터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해, 질병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거나, 급성 및 만성 건강 문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 H 대학의 보건센터는 두 명의 직원이 약 200명의 장애학생과 300명의 일반학생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어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들의 건강문제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체육시간에 열심히 하면 힘이 들어요. 다음 시간 수업을 받는 데도 지장을 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체육시간이 끝나면 보건센터를 들러 물리치료를 받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과 그 전에 한 번은 물리치료를 못 받았어요. 다른 장애친구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내 자리가 없었고 기구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12주 변형농구수업 중 김준민과 면담 내용).

저 같은 장애인에게는 체육시간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자유롭게 보건센터를 이용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환절기에는 몸살이 꼭 나고, 다른 친구들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쉴 곳이라고는 보건센터밖에 없는 데 간혹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니 불편해요(14주 변형축구수업 후 최태민과 면담 내용).

15주 동안의 통합체육수업에서 학기 초 태민이는 담당 체육교수에게 자유롭게 보건센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자신은 욕창이 간혹 발생하고 여러 종류의 약(예: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하기 때문에 보건센터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다. 추우면 감기에 쉽게 걸린다고도 하였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담당 체육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그 학생에게 자유롭게 보건센터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그 학생은 H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가 보건센터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이유는 약 21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인 담당 체육교수는 이 대학에 근무하면서 매년 가을철에, 그것도 환절기의 야간에 장애학생들이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자주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장애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해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들의 건강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도 H 대학의 보건센터 기능은 미흡했으며, 보건센터의 기능이 여타 부속기관 못지않게 강화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체육시간 역시 장애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담당 체육교수와 보건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에서 준민이가 진술한 것처럼, 자신이 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이 미흡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한정되어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함을 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H 대학의 장애학생들이 자유롭게 보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내 보건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후 타 부속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장애학생들이 편리하게 보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3) 다양한 용기구 확보

현재 체육활동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은 향후 실질적인 삶의 질

을 높이고 이들이 즐거운 체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구의 확보를 빼 놓을 수 없다. 다양한 용기구의 확보 및 사용은 장애인들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갖게 하는 요소이자 창의적인 학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오광진, 2005).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체육수업이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많은 체육교사들이 뉴 스포츠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뉴 스포츠 프로그램을 특수체육 현장에 소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은 새로운 용기구들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용기구의 확보 및 사용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긍정적인 체육문화 형성 및 질 높은 체육수업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체육수업을 보면 교수님이 다양한 공과 용품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구시간에는 풍선과 비치볼, 배드민턴 시간에는 라켓, 셔틀콕, 풍선, 야구시간에는 플라스틱 방망이, 탱탱볼, 스폰지볼, 보치아 시간에는 보치아공 세트, 농구시간에는 의자와 탱탱볼, 축구시간에는 탱탱볼과 콘(corn) 등을 사용하여 체육수업을 재밌게 해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교수님이 다양한 용기구를 사용한다면 장애학생들도 체육수업에 잘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14주 변형축구수업 후 김준민과 면담내용).

지영이는 티볼 야구 세트를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티볼 야구 세트가 자기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다. 지영이는 티볼 야구 세트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격이 얼마고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지영이가 처음 보는 용기구로 인해 이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동기유발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6주 변형야구수업 후 담당 체육교수의 수업일지 내용).

준민이는 담당 체육교수인 연구자가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체육활동을 만족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용기구는 우리나라 어느 체육현장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체육지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용기구를 변형하여 체육수업에 사용한다면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체육수업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서 진술한 준민이의 말대로 라면, 많은 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의 체육수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양한 용기구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한계 혹은 테두리 안에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들은 주변의 환경, 공간, 용기구 등을 변형하여 장애인들에게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영이는 본 연구자에게 티볼 야구 세트를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물론 처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인 내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티볼 야구 세트를 책이나 그림 등에서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느냐 하는 의문점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영이가 체육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기가 어려웠는지는 잘 암시해 주는 대목이고, 이는 또한 지영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5. 체육상담의 정례화

체육지도자가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체육시간뿐 아니라 여타 시간에도 많은 장애인들과 상담 및 대화를 나누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일반학생들과 대화하려고 해도 일반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의사소통 기술 등이 부족해 일반학생들과 대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수와 상담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가 보기에 H 대학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장애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애학생들은 이 시간이 형식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다. 대화 시간 역시 30분 미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저 가정환경 조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체육관련 상담을 요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체육활동과 관련된 상담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 동안 체육활동에 대한 경험이 적고 자신들의 건강 및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이 좋다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체육활동을 원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노형규, 2007; 이범진, 최승권, 한동기, 2007; Lytle & Hutchinson, 2004).

제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어떤 운동을 하라고 권유해 준다면 저도 운동을 한 번 해보고 싶는데 아직 저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5주차 변형배드민턴수업 후 성지영과 면담내용).

저는 갈수록 체력이 약해져 건강이 걱정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봤어요. 무슨 운동이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해요(2주차 변형좌식배구수업 후 김준민과 면담 내용).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하였다. 체육 용기구를 빌리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더욱이 기숙사에 생활하는 태민이는 야간에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오후 6시가 되면 용기구를 빌릴 수 있는 시간이 마감되어 체육 용기구를 빌리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체육시간 외에 이 대학의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즐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 또한, 체력 약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는 준민이는 진지하게 자신의 체육활동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었으나 교수님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또 괜히 자신이 교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지적으로 미루어 볼 때 장애학생들에게 체육관련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해주는 학교 지원시스템이 H 대학 내에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연구자: 너 이 체육수업 전에 운동을 해봤니?

김준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저 집에서 움직이는 정도 밖에 안 해 봤어요.

연구자: 왜 다른 운동들을 안 해봤지?

김준민: 운동을 해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해보고 해도 구체적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저 운동을 하면 네 신체가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구자: 그럴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김준민: 누군가 저에게 운동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하는데?

김준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사람보다 더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또 더 건강이 요구되고요. 그런데 아직 저한테 유용한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몇 번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럴 때 누군가 곁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위와 같이,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통합체육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소들은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 운동참여자(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 제공,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체육상담의 정례화로 밝혀졌다. 이들 생태학적 요소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담당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참여자의 마음가짐 사이에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체육상담의 정례화가 연계될 때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통합체육수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체육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피드백을 통해 담당 체육교수가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갖게 하여 다시 적합한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통합체육수업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H 대학의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생태학적 접근 시 준비 모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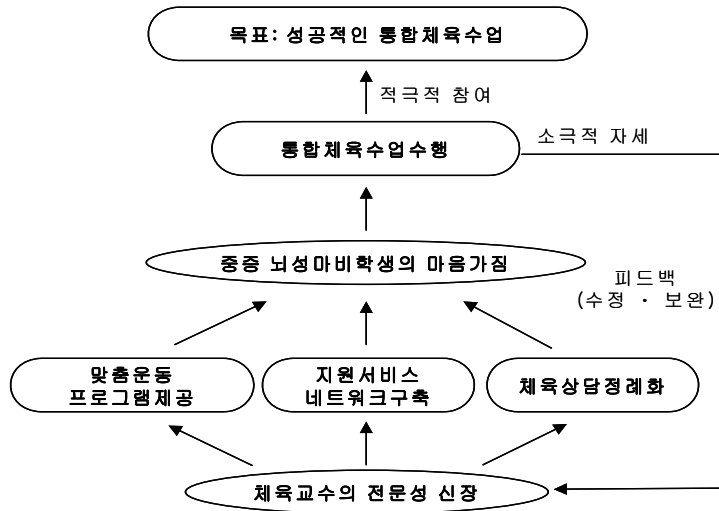


그림 1. H 대학 통합체육수업 시 생태학적 접근 준비 모형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생태학적 접근 시에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자가 H 대학의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을 대상으로 15주 동안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생태학적 개별 요소에서는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 ‘연구참여자(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맞춤 운동 프로그램의 제공’,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체육상담의 정례화’라는 5개의 주요 범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에서는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공 능력을 우선적으로 함양해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마음가짐에서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중요하며, 만약 마음자세가 소극적이거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동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고,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체육활동 참여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의 제공에서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맞게 경기규칙, 인원수, 장소 등을 변형하여 제공할 때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은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배제되지 않고 통합

체육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보건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한 운동을 할 때에도 단순한 기구보다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여 뇌성마비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육상담의 정례화에서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체육활동 및 건강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여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체육활동 및 건강관련 문제를 상담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담당 체육교수의 전문성 신장과 중증 뇌성마비학생의 마음가짐 사이에 대학 내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체육상담의 정례화가 연결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비되었을 때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통합체육수업이 잘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중증 뇌성학생들에게 성공적인 통합체육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통합체육수업의 완전참여자로서 참가하였다. 본 연구자는 1991년부터 특수체육(장애인체육)을 전공하였으며,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2002년 3월 1일, 경기도 소재 H 대학의 설립과 동시에 임용되어 해마다 여러 장애유형의 장애학생들을 통합체육수업으로 지도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비록 이 연구가 H 대학의 통합체육수업이라는 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지만 1995년부터 '장애인특례입학(교육인적자원부, 2002)'이 시작되어 지금은 많은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타 대학의 체육지도자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때 본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합체육 프로그램은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가능한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운동 종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운동종목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운동종목에도 참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도 있었다. 그 결과 첫 번째는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에게 통합체육수업을 할 때에는 이들이 체육수업에 참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중요하였고, 두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거나 장애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장애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세 번째는 체육지도자의 의욕 및 실천력이 중요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은 체육활동을 거의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학생들로서 연구자의 연구의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생들로 선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넷째, 본 연구는 H 대학의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이 통합체육수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통합체육수업 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생태학적 접근 시 준비 모형은 H 대학의 한 사례임을 밝혀 둔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일부 진술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의 마음가짐과 맞춤 운동 프로그램 제공 등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 중복되었다라든가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어떤 진술 내용이 더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 소제목별로 분리한 후, 연구목적에 맞게 그 내용들을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특수체육현장은 장애인의 학교체육현장을 의미하고, 장애인체육현장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체육현장이란 용어는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특수체육현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현장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

일곱째, 본 연구는 15주 동안 실시했지만 이 연구결과가 순수하게 15주 동안의 연구결과라고 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H 대학에서 5년 동안 통합체육수업을 수행하면서 중증 뇌성마비학생들의 생태학적 접근에 필요한 준비요건이 무엇인지를 장기간 고민하여 그 내용을 우연히 연구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2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김유환(2001). 통합체육의 준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9(2), 1-13.
- 김의수(2003). **장애아동 체육교실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무지개사.
- 김혜숙(2006). **교실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중등 지리수업의 질적 사례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노형규(2002). 일반 중등학교의 통합체육 시행 현황과 통합체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0(2), 13-26.
- 노형규(2004). **자폐성장애 중학생의 통합체육 수업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형규(2007). 통합체육수업을 위한 일반체육 교사의 준비요건 탐색.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1), 107-130.
- 오광진(2003). 교양 통합체육 수업 참가 대학생의 통합체육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811-820.
- 오광진(2005). 통합체육수업에서 중증 뇌성마비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3(4), 21-33.
- 오광진, 최승권, 김기영(2002). 일반중학생의 통합체육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0(1), 91-101.
- 이미영(2000). **통합체육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범진, 최승권, 한동기(2007). 특수체육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2), 97-115.
- 이용숙(1989). 문화기술적 수업연구방법. **한국교육**, 16(1), 41-80.
- 원종례(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연구**, 8(1), 47-70.
- 조용환(2000).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재훈(2003). 장애학생의 통합체육에 대한 지도실태와 체육교사의 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3), 131-144.
-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2002). **장애인이 있는 참 아름다운 세상**.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2).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 (10th ed). Washing, DC: Author.

- Davis, W. E., & Burton, A. W. (1991). Ecological task analysis: Translating movement behavior theory into practice.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8(2), 154-177.
- Denzin, N. K., & Lincoln, Y. S.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Thousand Oaks, CA: Sage.
- Guba, E. 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th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9, 75-92.
- Hastie, P. (1995). An ecology of a secondary school outdoor adventure camp.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5, 79-97.
- Hershey, P., Blanchard, K. H., & Johnson, D. E. (2001).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Leading human resources*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owalski, E. M. (1995). The infusion approach to teacher development.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66(4), 49-57.
- Lincoln, Y., & Guba, B.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ytle, R. K., & Hutchinson, G. E. (2004). Adapted physical educators: The multiple roles of consultant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1(1), 34-49.
- Nihira, K., Weisner, T. S., & Bernheimer, L. P. (1994). Ecocultural assessment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8, 551-566.
- Overton, T. (2003). *Assessing learners with special needs: An applied approach* (4th ed.). Columbus, OH: Merrill Prentice-Hall.
- Patrick, G. (1987). Improving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4, 316-325.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ery Park, CA: Sage Publication, Inc.
- Rizzo, T. L., & Bishop, P. (1997). Attitudes of soccer coaches toward youth player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A pilot stud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4, 238-251.
- Sax, C. L., & Thoma, C. A. (2002). *Transition assessment: Wise practices for quality lives*. Baltimore: Brookes.
- Siedentop, D. (2002).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1, 409-418.

논문제출일 : 2007년 8월 10일

게재승인일 : 2007년 9월 20일

Prerequisites for an Ecological Approach for Students with Severe Cerebral Palsy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Lessons

Kwang-Jin Oh*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requisites for an ecological approach for students with severe cerebral palsy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IPE) lessons. There were three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Male; 2, Female; 1) participating in this study at H college and have participated in IPE lessons for 15 weeks. Data was obtained from in-depth interviews, field observations, and related documents etc. Data analysis was through content analysis (Patton, 1990) for ecological approach for students with severe cerebral palsy. The results revealed five core domains about: profession expanding of physical education professors; mind preparation of participants; individual physical education program performance; formulating support-service networks and regular physical education counseling. In addition related to these ecological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individual physical education program performance, formulating support-service networks, and regular physical education counseling between profession expanding of physical education professors and mind preparation of participants were related. These findings imply, if a physical education professor teaches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the college should provide individual physical education programs, support-service networks, and regular physical education counseling between physical education professors and participants.

key word : Inclusive Educatio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lesson, Exercise Program, Support-service, Physical Education Counseling, Ecology, Cerebral Palsy

* kunokj11@hanmail.net